

일간지 출판기사 색인

● 올림픽 관전, 경기 안내서 10여 종 나와–규칙·일정·장소 등 총망라 소개/금메달후보 인터뷰·관광가이드 겉들여(한국일보 8월19일 金龍善기자)

● 출판, 전통문화 소개책 쏟아져 –88계기 민속 등 정리…내외인식 새롭게(동아일보 8월23일)

● 월간지「사회와 시상」9월호 첫 선–현단계 민족통일운동 실천전략/창간특집 남북한 통일정책 비교(서울경제신문 8월23일 姜升遠기자)

● “널린 불량서적서 청소년 보호하자”–잡지·만화 등 정기간행물 무분별 발행/서울 YMCA등 7단체 추방운동 전개(매일경제신문 8월25일 金慶子기자)

● 북한·중국 소재 저서 출판리시 –교포 등 기행문·소설·연구집 국내 소개/「용의 입맞춤」「중국 안조선족」「37년 걸린 길」등이 관심 모아(경향신문 8월25일 安健基기자)

● 출판문화운동협 제3기 신임회장 나병식씨–“출판관계법 개정에 최선 다할 터…/민족·민주운동에 앞장서는 조직으로 육성”(한겨레신문 8월26일 신연숙기자)

● 잡지계, ‘제자리찾기’ 움직임 활발–“언론재벌 잡지 독과점 막아 달라”/잡지협회서 ‘행정규제 개선 요망사항’ 전의(한겨레신문 8월26일 정상영기자)

● 여성문학 전문지 본격 등장–최초 무크지「여성운동과 문학」창간 계기/발표지면 넓어져 ‘여성문학론’ 정립 활발/‘여류문인 특별 취급’ 거부가 편집의 공통(한겨레신문 8월28일 조선희기자)

● 올림픽 관련도서 앞다퉈 쏟아진다–경기해설, 전통문화 등 소개/「한국의 탈」등은 일본 수출까지 계획(중앙일보 8월29일 李憲益기자)

● “중국서도 當비판문학 활발”–내한한 중국펜클럽 부회장 평무씨 인터뷰·문학의 정치도구화 반대

… 대만작품 자유롭게 출간 / 잡지 600여종…검열 없다 (조선일보 8월 31일 金亨基기자)

● 출판사를 찾아서–향문사 / 한우물 40년…농학서적만 190종 / 전문출판 어려움 극복, 학계에 기여 / 한국인 책만…번역서 없는 것도 큰 자랑(스포츠 서울 8월31일 박연호기자)

● KBS사업단 ‘서울올림픽 즐기는 법’ 출간, MBC아나운서실도 올림픽 안내책자 제작–올림픽의 발자취, 참가국 프로필 담아 / 경기규칙에 대한 지식과 정보 수록(스포츠 서울 8월31일)

● “빼앗은 지형과 책 돌려달라”– 도서출판 사계절 「임꺽정」 사상 첫 반환 청구소송 / 85년 10월10일 홍명희 지음 「임꺽정」(전9권)지형 9개와 책1백질 9백권을 압수당한 사계절 대표 김마리아가 제기 / ‘행정지도’ 명목 압수 법적 근거없어 / 출판탄압 부당성 가릴 중요한 사건 (한겨레신문 9월1일 신연숙기자)

● 출판사대표 구속–「자본 I」 발행혐의 / 「이론과 실천」 대표 김태경씨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(한국일보 9월2일)

● “春園의 「무정」보다 2년 빠른 작품”–백화 梁建植작 단편 「石獅子像」 / 신문학 초창기 활동…文名 안알려져 / 흠토하는 후학들 「梁白華文集」 출간(서울경제신문 9월2일 姜升遠기자)

● 펜대회 참석한 르네 타베르니에씨–박경리씨 작품 佛문단 화제…「土地」붐 예고(조선일보 9월2일 金亨基기자)

● 세계의 화제, 소련 800여종 책 해금 / 스탈린 때 숙청자 저서 공개 –타스통신이 보도 / 트로츠키의 「1917년 혁명사」 등은 공개여부 불확실(한겨레신문 9월3일)

● “출판탄압 중단 촉구”–출판문화운동협의회 성명 / 이론과 실천사 대표자 구속과 관련…김씨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등 요구(한겨레신문 9월3일)

● “한 사상으로 한민족 이루자”–「한밝문명론」 폐낸 김상일교수 이색 주장 / ‘하늘·땅·인간’ 모두 하나…조화론 바탕 / 마르크시즘·반공주의 서구문명 위기 초래(한겨레신문 9월2일 신동준기자)

● “월북작가 저작권 특별법 제정을”–해금작가 저작권 세미나 / 활발한 해금작가 작품 출판…월북작

가의 저작권보호 위한 대책 강구 / 가족이 권리행사할 수 있도록…현행 법률상 사망 30년 넘으면 상속 못받아(경향신문 9월3일 李傭기자)

● “「토지」 작품성 좋아 내년에 佛서 출판”–프랑스 펜본부회장 르네 타베르니에 인터뷰 / 프랑스서 최근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 서서히 쓸려…불역된 「토지」 세차례나 읽고 높은 작품성 인정(조선일보 9월 3일 李夏慶기자)

● “공산권서 한국작품 번역 소개 활발”–펜대회 폴란드 대표 멜라노비치씨가 밝혀 / 자신이 편집동인으로 있는 「세계의 문학」지에 최인호·윤홍길·김지하씨 등의 작품 번역할 예정(조선일보 9월3일)

● “북한 등 공산권 자료 개방의 의미”–실상 알려 건전 통일관 배양 / 국력 자신감…이념문제 국민판단에 / 금역화서 오는 대북편향 시각 교정(서울신문 9월4일 禹得楨기자)

● “북한 「로동신문」 97곳서 볼 수 있다”–북한·공산권자료 공개…대출·열람 어떻게 하나 / 복제·대출은 특수취급자만 가능…내년 2월경 통일원 등에 자료센터 마련(동아일보 9월5일 蔣炳守기자)

● “다시 부는 출판탄압 돌풍”–「자본」, 「보안사」 편집자 구속·수배…출판계 긴장 / 시대 역행…「국가보안법」 폐지해야 / 한출협서 출판탄압 사례 보고대회, 공동대책방안 논의(한겨레신문 9월6일 신연숙기자)

● “월북문인 작품 저작권은 누가 갖는가”–생사 확인돼도 법적 문제 복잡 / 보호기간 지난 사망자 특별규정 뒤야…「월북문인 저작권 권리위원회」 같은 민간기구의 필요성도 대두(한겨레신문 9월6일 오룡기자)

● “서점가 올림픽 안내책자 쏟아져”–경기규칙 관전요령 문화축전 등 소개 / 10여종 새로 출판(동아일보 9월6일)

● “유아도서 그림 많이 실어야”–「유아문학 세미나」주제별 토론 / 외국그림책의 베껴먹기 출판보다 국내 삽화가들이 적합한 그림 그리도록…아동도서출판계의 그림에 대한 인식 새롭게 해야(서울경제신문 9월6일 鄭在淑기자)

● “월간 「흐름」 창간–민주화와 관련된 모든 정보 수집 / 운동권의 현장 동향 제공(동아일보 9월6일)

● “해금작가 작품이 쏟아진다”–7. 19후 「책펴내기」 100여권 달해 / 인간적인 평가 겸들인 비평서 인기(동아일보 9월7일 咸承鎔기자)

● 홍명희작 「임꺽정」 법정비화–사계절…재산피해 5000만원 지형 반환 요구 / 5인 월북문인의 판금조치 계속성의 법적 해석 여부…출판사 항변 등에 결론 귀추가 주목(매일경제신문 9월7일 咸承鎔기자)

● “볼쇼이는 보이고 「자본론」은 뮤고”–문화정책에 논리와 일관성 있어야 / 구속 출판인들 석방후 출판문화정책의 재검토 있어야(한겨레신문 9월7일)

● 출판사를 찾아서–계몽사 / 어린이책 만들기 42년 / 필경본 「한글맞춤법통일안」으로 출발…「문화세계사」는 어른들도 찾는 좋은 책(스포츠 서울 9월7일 박연호기자)

● 문공위 언론관계법 「인쇄매체」 공청회–시설기준·자격규제 등 독소많아 / 보안법관련 ‘알 권리’ 제한 삭제를…정기간행물법 출판사등록법에 언론규제 명백…폐지 또는 개정돼야(경향신문 9월7일)

● 문공위 언론공청회 토론내용–인쇄매체 관계법률 / 등록취소 규정 행정권남용 소지…편집권 독립도 명문화시킬 필요(동아일보 9월7일)

● 인쇄매체관계법 개정공청회 발표 요지–학계·언론계·출판계 대표 모여 토론 / 언론·출판 자유 침해하는 ‘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’ 폐지토록…알 권리 제한하는 독소조항은 삭제돼야(중앙일보 9월7일)

● “김태경·김종식씨 내놓아라”–출판탄압 긴급보고대회 / 대책위원회 발족…민주변호사회도 지원 약속 / 구속 출판인의 석방촉구(한겨레신문 9월9일)

● “국민 한사람 책 1. 4권 읽는다”–문예진흥원 한양대 언론문화 연구소 「문화예술수용」 보고서 / 고학력 전문직일수록 신문 선호 / 1인당 100권 정도의 책 소유…소설류 가장 즐겨 읽고 전문서적·수필·시집 순으로 많이 읽어(동아일보 9월9일 高美錫기자)

● 출판협회 회장직 둘러싸고 말썽–탈세혐의 구속, 사퇴서 냈던 權炳壹회장 복귀 / 「혁신모임」 성명 한 달째 흐지부지…일부선 ‘염치없는 행동’ 큰 반발(서울경제신문 9월9일 姜升遠기자)

● 출판화제 –88개정 한글맞춤법·표준어규정 따른 ‘바른말 편집’ 金達鎬씨 편찬 / 틀리기 쉬운 우리말 풀이(서울경제신문 9월9일)

● “대동여지도 들고 산맥연구 10년”–지도제작자 광우당 대표 / 연결선 틀리고 명칭표기 잘못 많다 주장…우리 생활에 맞는지도 만들어 보급하겠다(스포츠 서울 9월9일 곽영완기자)

● 「민족문화대백과사전」 1,2권 출간–정신문화연구원서 8년만에 첫 성과…91년 27권 완간 / 총항목수 65,000개로 막대한 분량…민족문화 결집체로서 역할 기대(동아일보 9월10일 洪贊植기자)

● 「한국어강좌」책 외국선수에 인기–외국선수들에게 한국어 소개하기 위한 책…하루 1000부씩 나가…인사말·자기소개법 등 수록(경향신문 9월10일)

● “인쇄인 스스로 반성한 결과입니다”–인쇄문화운동협의회 만든 강은기씨 / 출판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서 인쇄에 대한 인식 새로이 하기 위해(한겨레신문 9월10일 신연숙기자)

● 정신문화연구원, 「민족문화대백과」 펴내–착수 8년만에 1·2권 첫 결실 / 필진 3,200명…「동국문헌비고」 이래 최대役事…91년까지 전27권 완간(조선일보 9월10일 金泰翼기자)

● “뜨거운 ‘정보’갈증…허물벗는 대륙 실감”–베이징 국제도서박람회에서 본 중국 / 한길사 대표 김언호씨 방문기 / 신간정보에 ‘무서운’ 관심…자료와 출판물 구득난 심각 / 36개국 1400개 출판사 참가…첫 참가 한국에 깊은 관심…조선족들 국내 출판참여 원해(한겨레신문 9월14일)

● 「자본론」의 출판과 사회의 진강–구속출판인 석방…법원 시작변화의 전기되길 / 적부심 석방의 논리, 판결로 이어져야(한겨레신문 9월14일)

● 韩·中 출판교류 긍정적–출판인들 ‘북경국제도서전’ 참석후 귀국 / 한국 정기간행물, 중국 간부들 회람…북한 의식, 조용한 실질관계 원해(중앙경제신문 9월14일 金成熙기자)

● 「백두산 가는 길」 펴낸 재미동화 작가 황영애씨 / 만주·백두산의 우리 동포들 만남 이야기 엮어 (스포츠 서울 9월14일 박찬기자)